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부활절 제3주 】

| | |
|------------------|-----------|
| 전 주 | 반주자 |
|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 | |
|----------------|----------------------|-----|
| ♠ 경배의 찬송 | 52. 햇빛을 받는 곳마다 | 다함께 |
| ♠ 공동기도 | | 다함께 |

자비하신 하나님, 생명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할 이 땅 곳곳에서 들려오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숲덩이로 변해버린 숲과 살림터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사람들의 부주의로 파괴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까워야 할 이웃인 일본은 과거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문제로 먼 이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빛과 어둠이, 그리고 선과 악이 뒤섞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각자에게 분유된 생명의 몫을 온전히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 |
|------------------|------------------------|---------|
| ♠ 참회의 침묵기도 | |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 살전2:19-20 | 인도자 |
| ♠ 교 독 문 | 16. 시편 63 편 | 다함께 |
| ♠ 영 광 송 |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함께 |
| 대표기도 | I. 황건호 선생 II. 한상익 장로 | |
| 응 답 송 | | 성가대 |
| 찬 송 | 86.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 다함께 |
| 성경봉독 | I. 요9:1-3 | 인도자 |
| | II. 막5:25-34 | 이동천 집사 |
| 찬 양 | | 성가대 |
| 말 씬 | I. 나에게 이런 일이! | 염혜영 전도사 |
| | II. 너무나 인간적인 | 김기석 목사 |
| 거둠기도 | | 다함께 |

| | | |
|-------------------|--------------------------|-----|
| 헌신의 찬송 | 218.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다함께 |
| 헌금봉헌 | | 다함께 |
| ♠ 봉 헌 송 |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 다함께 |
| ♠ 봉헌 및 목회기도 | | 인도자 |
| 공동체 소식 | | 인도자 |
| ♠ 평화의 인사 | | 다함께 |
|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 ♠ 보냄의 말씀 | |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오늘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께 선물로 받은 시간을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섬김으로 채워 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이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받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해도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길로 삼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 길을 걷다가 마침내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 | |
|-----------------|--------------|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 집회 |
| 말씀 : 김재흥 목사 | 말씀 : 장영숙 전도사 |
| 기도 : 박미영 집사 | 기도 : 정영선 집사 |

| | | | |
|-------------------------|------------------|------------------|---------------|
| 다음 주 예 배 위 원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 곽권희 집사 김재흥 목사 | 인도자 박규석 집사 |

| | | | | | | | |
|-----------|------|-----|-----|-----|-----|-----|-----|
| 4월 | 영접위원 | 구성실 | 김정길 | 김훈동 | 송동준 | 임창선 | 권미정 |
| | 헌금위원 | 조병무 | 이호원 | 하현철 | 유영남 | 구명자 | 안정숙 |

불행과 자비가 만나는 교차점

장 바니에는 일요일마다 오후 5시가 되면 복음에 대한 자신의 성찰결과 몇 가지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세계 여행이 많아서 이 ‘파르타주(나눔)’가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 되고 말았다.

오늘은 장이 집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40명 가량의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레 모로니에 강당 바닥에 자리잡고 앉았다. 장애자 몇 사람과 조력자 몇 사람, 그리고 상당수가 방문자들이었다. 그는 먼저 누가복음을 낭독하고는 방금 읽은 말씀을 큰 소리로 묵상했다. 마치 친구의 기도 속으로 들어오도록 초대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자리였다. 심오한 신학적 분석도, 어려운 낱말도, 복잡한 사상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충실하게 스며드는 그런 묵상이었다.

장은 나를 감동시키는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 가운데서 줄곧 내 안에 자리잡고 부단히 확대되어가는 말 한마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작음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곳은 불행과 자비가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파리의 빈곤을 어느 정도 목격하고, 지난 주일에 가난한 이들을 섬기라고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라고 부르심 받은 것이라는 그의 말을 들었던 터라, 나는 이 말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작은 사람들, 작은 기쁨, 작은 슬픔을 선택하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고 믿는 것—이것이 바로 힘든 예수의 길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길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강렬한 반발감을 다시 한번 맛보았다.

나는 작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거나 하다 못 해 작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까지도 아주 기쁘게 할 생각이면서도, 그것이 거창한 사건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내 안에는 예수의 길을 끊임없이 세상의 눈에 영광스럽게 보이는 어떤 길로 바꾸고 싶어하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 나는 항상, 작은 길이 커다란 길이 되어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그러나 세상이 비켜가기를 원하는 장소로 향하시는 예수의 발길을 성공 이야기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가 가난의 자리에 접근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자리 너머에서 훨씬 더 심한 가난을 발견하게 마련이다. 부와 재물, 성공, 갈채, 특전으로 되돌아갈 길은 실제로 없다. 물질적 가난 너머에는 정신적 가난이 있고, 정신적 가난 너머에는 영적 가난이 있으면, 영적 가난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자비시라는 적나라한 신뢰밖에 아무 것도 없게 된다.

이 길은 우리가 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예수와 함께라야 우리는 오직 자비밖에 존재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도 바로 이 자리였다.

예수의 길은 예수와 함께라야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이 길을 나 혼자서 걸어보려고 할 경우, 그것은 영웅행위 그것처럼 변하기 쉬운 일종의 역전된 영웅행위가 되고 만다. 완전한 자기포기와 자비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뿐이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잘려나간 가지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나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다. 그리고 동시에 약속해주고 계신다.

“내 안에 머무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15:5)

기도 없는 행동이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는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 안에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예수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고, 그분과 합일하여 그분의 길을 함께 걸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헨리 뉴엔, 《새벽으로 가는 길》 중에서

동반자로서의 기도에 대하여

한 사부가 말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요.”

그저 무턱대고 일에 착수했을 때, 우리는 실제로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 모를 때가 많다.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이런저런 계획에 꼭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지만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실제로 다른 것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 어쩌면 그에게는 자신의 진실과 대면할 수 있게 해주는 침묵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또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해치는 것을 얻는 데 몰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부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행동하지 않도록 기도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을 기도로 뒷받침하면 그 활동들은 복을 가져다줄 것이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동반하면 우리는 행운의 손길을 얻게 될 것이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내적 자세를 바꾸어준다.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할 때, 나는 내 행동의 위험성을 못보고 넘어간다. 나는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기도는 나의 동기를 순화시키고 그림으로써 내 행동을 좀더 효과적이고 깨끗하게 만든다. 나는 맹목적으로 내 일에 무모하게 달려들지 않을 것이며,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지 판단받을 것이다. 말하자면 기도는 내 행동들이 잘되고, 그림으로써 나 자신과 다른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원천이 되게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안젠렘 그린, 《사막을 통한 생명의 길》 중에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 담임목사 : 김기석 | 부담임목사 : 김재흥 | 심방전도사 : 장영숙 |
| 원로목사 : 박정오 |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 원로전도사 : 박옥식 |
|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 | |
|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 | |
| 성가대장 : 한상익 | 지휘 : 윤주원 |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
| 관 리 인 : 노용래 | 운전기사 : 오진훈 |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한상익 정영선 고사일 최영선 김근중 정옥영 백요현
 백승민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윤미경 김지호 김지윤 김순복 전영웅
 노용래 차혜심 장영숙 조병무 송양진 염혜영 김재흥 최희영

월정헌금:

하현철 최성애 안길상 이형숙 유증희 이재문 문금석 정두리 이소순
 박준희 이기분 전영규 김경수 이정은 김미순 김 극 김종문 지명주
 이봉배 송의섭 김정섭 김창경 이증자 임수연 임원민 노미향

감사헌금:

조병무 송양진 방문성 박혜경 조병주 박창운 허정윤 이인섭 김지윤
 김용진 박효선 안종일 정현주 김종훈 안경숙 김필순 윤미경 윤수진
 이건화 이성범 유혜경 서정순 배진화 무명1

생일감사헌금: 한선희 임 영 김종철 구도헌금: 무명1

◇ 속 회 보 고 ◇

| 속 명 | 인 도 자 | 속 장 | 모 인 곳 | 다음 장소 |
|---------|-------|-------|-------|-------|
| 예루살렘 | 유 영 남 | 차 혜 심 | 정 두 리 | 김 애 경 |
| 베들레헴 | 노 순 옥 | 정 경 례 | 김 영 한 | 김 미 순 |
| 안 디 옥 | 임 정 자 | 곽 권 희 | 이 소 순 | 이 건 화 |
| 가 나 안 | 문 영 혜 | 박 경 선 | 이 봉 배 | 박 경 선 |
| 갈 린 리 | 조 병 주 | 박 애 순 | 박 애 순 | 안 정 숙 |
| 베 다 니 | 임 창 선 | 박 흥 재 | 김 필 순 | 전 영 순 |
| 시 온 | 박 효 선 | 허 정 윤 | 허 정 윤 | 이 인 섭 |
| 엠 마 오 | 최 숙 화 | 권 미 정 | 이 기 분 | 최 희 정 |
| 에 베 소 | 이 순 정 | 장 혜 숙 | 교 회 | 교 회 |
| 빌 린 보 | 구 성 실 | 박 현 우 | 구 성 실 | 권 명 자 |
| 가 버 나 움 | 구 명 자 | 안 흥 숙 | 김 진 경 | 구 명 자 |
| 나 사 렛 | 백 혜 숙 | 정 옥 영 | 임 수 연 | 백 혜 숙 |
| 갈 라 디 아 | 송 양 진 | 유 경 순 | 김 명 희 | 안 경 숙 |
| 고 린 도 | 이 영 란 | 이 증 자 | 윤 정 화 | 김 성 자 |
| 다 메 섹 | 박 혜 경 | 최 영 혜 | 최 영 혜 | 조 향 미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1.3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2. **동호회** : 다음 주일(17일) 오후에는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3.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12일(화) 오전 10시에 정동제일교회에서, 남선교회 계삭회가 14일(목) 오후 6시에 필동 교회에서 열립니다.
4. **담임목사** :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화천제일교회 신앙집회를 인도합니다.
5. **평화교육세미나** : 이번주 화요일부터 감리교평화교육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평화교육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평화교육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6. **심방** : 봄철 심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모든 속회원이 참여하는 심방이 되도록 합시다. 수요일-가버나움, 목요일-베다니, 금요일-갈라디아
7. **신앙실천** : 큰 산불로 인해 잿더미로 변한 산과 마을을 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심고, 가꾸고, 보살피는 노력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일입니다.

* 식당 봉사 : 고린도 속 / 황건호 박인혁

* 헌화 : 윤미경·윤수진 집사(어머니 생신 감사)

◇ 집 회 안 내 ◇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 아 부 | 10:50 | 유아부실 | 1부예배 | 09:30 | 교육관 |
| 유 치 부 | 10:50 | 유치부실 | 2부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육관 | 오후집회 | 14:00 | 교육관 |
| 중고등부 | 10:5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9:30 | 교육관 |
| 청 년 회 | 16:0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